

## 환상과 현실 사이

——에드거 앤런 포우 Edgar Allan Poe(1809~1849)의 시 세계——

이정호

## 시와 음악과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의 죽음

포우는 미국이 냉은 19세기의 가장 낭만적인 시인이며 또한 추리·단편 소설가이다. 그의 시 세계는 그의 생애만큼이나 우리에게 끄기한 아름다움의 세계를 펼쳐 보인다. 그의 시와 시론은 그의 생애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그의 생애는 그의 시만큼이나 흥미있다.

그의 시와 시론을 살펴보기 전에, 그러므로, 그의 시와 연관하여 그의 삶을 간단히 살펴보는 것은 쓸데 없는 일은 아닐 듯 하다. 그의 탐정 소설에서도 그러하듯이 그의 시에서도 죽음과 아름다움과 여인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더구나 그는 “아름다운 여인의 죽음은 이 세상에서 정말로 가장 시적인 주제”<sup>1)</sup>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로 이 세 가지 요소—죽음, 아름다움, 그리고 여인—는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실제로 포우의 이러한 시론이 나오기까지는 그 자신의 절실한 체험이 밀바탕에 있다. 그에게 있어 여인의 상실은 그의 어머니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다. 포우의 양친은 유랑극단의 배우였는데, 그가 한 살이 되던 해인 1810년(포우는 1809년에 보스頓 Boston에서 태어났다)에 그의 아버지는 포우와 두 동생을 어머니에게 맡겨 놓은채 어디론지 종적을 감춘다. 두 아이를 혼자 떠맡게 된 포우의 어머니는 버지니아 Virginia주 리치몬드 Richmond에 오게 된다. 여기서 포우의 어머니마저 죽게 되자(포우가 두 살 때인 1811년) 그를 존 앤런 John Allan이라는 부자가 맡아 기르게 된다. 그의 부인은 프랜시스 키일링 앤런 Frances Keeling Allan으로 아기를 가지지 못한 부인이었다. 이에 포우를 맡아 기르게 되자 그녀는 포우에게 모든 정성을 쏟았다. 그러나, 앤런 부인이 죽고 존 앤런이 재혼하자, 포우와 존 앤런 사이는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된다.

이처럼 어머니의 자연스런 사랑을 못 받고 자란 포우는 이상적인 여인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하게 된다. 열 한 살 적에 그는 그의 반 친구의 어머니인 제인 스티쓰 스탠어드 Jane Stith Stanard라는 여인에게 강렬한 연정을 느낀다. 스탠어드 부인에게 느낀 이같이 강력한 사랑의 감정은 그가 후에 <헬렌에게 To Helen>라는 시를 쓰게 되는 원동력이 된다. 포우는 또한 쎄라 엘미러 로이스터 Sarah Elmira Royster라는 여자를 알게 되어 깊은 사랑에 빠진다. 세월이 갈수록 이들 사이의 사랑은 더욱 깊어져 포우는 그녀와 약혼한 채지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쎄라의 아버지는 포우의 장래에 별로 큰 기대가 없음을 보고 쎄라를 다른 사람에게 결혼시켰다. 포우는 이에 쓰디 쓴 실망을 맛봐야 했다. 이것은 그가 벼지나아대학에 다닐 때인 1826에 일어난 일로써, 이 때 그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노름 빚을 지고 있었다. 존 앤런은 포우의 막대한 노름 빚을 갚아 주기를 거절했으며, 포우는 대학을

1) Edgar Allan Poe, *Selected Writings of Edgar Allan Poe*, ed., Edward H. Davidson (Boston: Houghton Mifflin, 1956), p. 458. 앞으로 이 책에서 인용할 경우에는 『포우선집』이라 표기하고, 쪽수만을 밝히고 주를 생략하겠습니다.

자퇴하지 않으면 안됐다.

쎄라에게서 받은 실연의 충격을 안고 포우는 볼티모어로 간다. 그는 거기서 고모뻘이 되는 마리아 포우 클렘부인 Mrs. Maria Poe Clemm과 그의 딸인 버지니아 Virginia와 같이 살게 된다(1831~1835). 포우는 그의 사촌인 버지니아를 사랑하게 되어 1836년 5월에 그는 그녀와 결혼한다. 그 때 그녀의 나이는 아직 만 14세가 되지 않았다. 포우는 부인 버지니아와 고모와 함께 경제적으로는 아주 가난하지만 정신적으로는 행복한 삶을 누렸다. 이러한 생활을 10년 남짓하여, 몸이 약한 버지니아는 1847년 1월 30일에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난다. 버지니아를 여읜 포우의 슬픔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사랑하는 부인을 여읜 실의와 가난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시게 된다. 그러면 중 그는 쟈라가 미망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1849). 그는 그녀가 살고 있던 리치몬드로 가서 그녀와 결혼할 것을 간청하여 그녀의 동의를 받는다. 이런 일이 있은 두 달 후에 그는 필라델피아로 출장차 떠난다. 출장을 떠난 지 옛새 후 인사 불성이 된 그가 볼티모어의 길거리에서 발견된다. 이후로 나흘 뒤인 1849년 10월 7일 헛소리를 하던 그는 세상을 하직한다. 그는 만 40세의 일생을 가난과 실의 속에 살면서 사랑하는 여인의 모습을 꿈 속에서 보면서 이 세상을 마친 셈이다. 이와 같은 그의 고뇌에 찬 일생이 보여 주듯 그의 시는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그리움과 이러한 그리움의 아름다움으로 꽉 차 있다. 그의 시론 또한 이러한 그 자신의 고뇌에 찬 생애의 산물이다.

이와 같이 기구한(어떤 측면에서 보면 낭만적인) 삶을 살다 간 포우의 시와 시론은 그의 삶에 기초한 것이며, 또한 그의 삶의 결정체이다. 그의 시를 살펴보기 전에 그의 시론을 살펴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의 시를 더 잘 이해하는 지름길일 수도 있다. 그의 시론(詩論)에서 가장 중요한 뜻을 하는 것은 시와 음악과의 관계이다. 그는 “B——에게 보내는 편지 Letter to B——”의 끝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저는 한 편의 시는 한 편의 과학 논문과는 정반대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한 편의 시는 진실(또는 진리)가 아닌 즐거움을 그것의 가장 직접적인 목표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는 또한 로맨스(romance)와도 다릅니다. 시는 확정적인 즐거움 대신에 [무어라고 꼬집어] 말할 수 없는 불확실한 즐거움을 그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이 이루어질 때에만 시는 시일 수가 있습니다. 로맨스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심상(心像)을 손에 잡힐 듯이 확실히 묘사해 주지만, 시는 불확실하게 묘사해 줍니다. (시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음악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이는 감미로운 소리의 이해라는 것이 큰 우리의 가장 불명확한 개념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리므로) 음악이 즐거운 생각과 합쳐지면 (이것이) 시가 됩니다. 생각이 없는 음악은 그저 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악이 없는 생각은 그것이 분명하다는 의미에서 산문에 불과합니다(『포우 선집』, 414-415쪽).

여기에서 우리가 보듯이 포우는 시의 특성으로 그것의 불명확성을 첫째로 들고 있으며, 이를 음악과 견주어 설명하고 있다. 분명한 생각을 나타내지만 음악이 없는 것을 로맨스 즉, 산문으로 분류한다. 포우의 결론은 그러므로 “음악이 즐거운 생각과 합쳐지면 (이것이) 시”라고 했는데, 여기서 수식하는 부분을 빼면 음악은 [곧] 시(즉, 음악=시)라는 등식을 얻을 수 있다. 시는 불확실한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는 또한 음악과 같은 것이라는 포우의 생각은 미국에서는 큰 공감을 얻지 못 했다. 그러나 불란서의 상징주의의 시인들은 이러한 포우의 시론(詩論)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즉시 공감하고 나섰다. 샤를르 보들레르

Charles Baudelaire(1821~1867)는 포우는 인간의 감성의 깊은 층면을 발견한 시인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그리고 스테판 말라르메 Stéphane Mallarmé(1842~1898)는 “에드거 포우의 무덤 Le Tombeau d'Edgar Poe”이라는 유명한 쏘네트를 썼다.

#### 에드거 포우의 무덤

본래의 <그 자신>으로 영원은 마침내 그를 바꾼다  
 시인은 깨운다 뽑은 칼로  
 사신(死神)이 이 이상한 목소리 속에 개가를 울리는 것을  
 알지 못하여 공포에 절린 그의 세기(世紀)를!  
  
 그들은, 옛날 천사가 종족의 언어에  
 더욱 순수한 의미를 주는 것을 들은 히드라의 야비한 경련처럼  
 소리 높이 선언했다 어느 숲의  
 불덩에스런 흥수로부터 들이킨 마술이라고.  
  
 적대적인 땅과 하늘로부터, 아 슬프다!  
 만일 우리들의 상념(想念)이 포우의 눈부신 묘비(墓碑)를  
 장식 할 부각(浮刻)을, 어느 검은 재난으로부터  
 이곳에 떨어진 조용한 돌덩어리를 세길 수 없다면  
 이 화강암이 적어도 미래로 터지는  
 모두의 검은 비상(飛翔)에 영구히 경계를 표시해 주기를.  
 (민희식 옮김)

#### LE TOMBEAU D'EDGAR POE

Tel qu'en Lui-même enfin l'éternité le change,  
 Le Poète suscite avec un glaive nu  
 Son siècle épouvanté de n'avoir pas connu  
 Que la mort triomphait dans cette voix étrange!  
  
 Eux, comme un vil sursaut d'hydre oyant jadis l'ange  
 Donner un sens plus pur aux mots de la tribu  
 Proclamèrent très haut le sortilège bu  
 Dans le flot sans honneur de quelque noir mélange.  
  
 Du sol et de la nue hostiles, ô grief!  
 Si notre idée avec ne sculpte un bas-relief  
 Dont la tombe de Poe éblouissante s'orne,  
 Calme bloc ici-bas chu d'un désastre obscur,  
 Que ce granit du moins montre à jamais sa borne  
 Aux noirs vols du Blasphème épars dans le futur.

말라르메는 이 시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포우와 그의 시의 특성을 가장 잘 포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의 첫 줄에서 “본래의 <그 자신>으로 영원은 마침내 그를 바꾼다”고 밀접으로써 말라르메는 포우에 대한 시적 진실을 역설적(逆說的)으로 표현하고 있다. 포우는 그의 죽음과 더불어—그리고 그가 그처럼 미화했던 “아름다운 여인의 죽음”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을 그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으며—그 자신의 인생과 그가 쓴 시들을 영원 속에서 언제나 아름다움으로 남게 만든 셈이다. 말라르메는 시인을 “천사”이며, 그의 사명은 “종족의 언어에 더욱 순수한 의미를 주는 것”(둘째 연, 2~3줄)으로 생각했으며, 여기서의 천사는 물론 포우를 의미한다. 이처럼 말라르메에게는 포우는 일상어를 구제하고 정화하는 시인의 원형(原型)이었다.<sup>2)</sup> 이러한 말라르메의 포우에 대한 생각은 그가 포우의 이름을 표기하는데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포우의 이름을 Poe라고 표기하는 대신에 Poë라고 표기하기도 했는데 이는 이 시의 둘째 줄에서 포우를 “시인”(Le Poëte)이라고 부를 때의 발음과 아주 비슷한 여운을 남긴다. 말라르메에게 있어 시인 포우는 곧 시인을 대표하는 “포에뜨 포우”(Le Poëte Poe)였던 셈이다. 더 나아가서 포우의 이름에 들어 있는 “O”음은 이 시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는 포우가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할 뿐만 아니라, 포우의 시론에 나타나는 음악성에 말라르메가 착안한 것으로써, 둘째 연의 마지막 줄에서 이것이 아주 잘 나타난다. “포우의 눈부신 묘비를 장식할 Dont la tombe de Poe éblouissante s'orne”이라는 이 줄에는 “O”음의 연속으로 연결돼 있다(Dont, tombe, Poe, s'orne). 이는 곧 “O”음이 나타내는 상징성 속에서 이해되는데, 우선 “O”라는 글자가 나타내는 원은 그 자체로써 영원성과 무궁함을 간직한 자족의 상태를 보여준다. 이는 신의 경지와도 연관이 있는데, 신은 곧 우주의 시작인 알파(A)이고 궁극인 오메가(O)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그의 무덤에 묻혀 있는 포우의 완전한 외로움과 격리까지도 “O”음 속에서 같이 읽게 된다.<sup>3)</sup> 불란서 상징주의 시인들은 바로 이와 같은 음의 색깔을 그들의 상징으로 쓰는 방법을 포우에게서 배운 셈이다. 특히 아르튀르 랭보 Arthur Rimbaud(1854~1891)의 “모음 Voyelles”이라는 시는 이러한 음의 상징을 아주 잘 보여주는 시이다. 불란서 상징주의 시인들과 포우와의 끈끈한 관계는 이어서 그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Paul Valéry(1871~1945)는 특히 포우의 시론과 비평 이론에 깊은 감명을 받아, 그를 “위대한 문학의 공학자”라고 불렀다.<sup>4)</sup> 이제 포우의 시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그의 시론을 살펴 보기로 하자.

### 포우의 시론

포우에게 있어서 시의 정수는 곧 “시적 정서”<sup>5)</sup>였다. 이 시의 정서를 그는 “아름다움과 숭고함과 신비의 느낌”<sup>6)</sup>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시의 정서를 나타내는 시는 교훈적이라기보다는 즐거움을 주어야 한다고 포우는 생각했다. 그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사람(시인)이 교훈을 주는 시인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며, 그러므로 워즈워쓰 Wordsworth 같이

- 
- 2) Cleanth Brooks, et al, eds., *American Literature: The Makers and the Making*, Vol. I (N.Y.: St. Martin's, 1973), p. 353. T.S. Eliot는 말라르메의 “종족의 언어에 더욱 순수한 의미를 주는 것 Donner un sens plus pur aux mots de la tribu”라는 표현을 그의 『네 사중주 Four Quartets』 중의 하나인 “리틀 기딩 Little Gidding”의 둘째연에서 “민족의 방언을 순화한다 purify the dialect of the tribe”라고 쓰여 말라르메를 통한 포우의 영향이 엘리어트에게서도 나타남을 보여준다.
- 3) Robert Greer Cohn, *Toward the Poems of Mallarmé*, Expanded Ed., (Berkeley, CA: U of CA P, 1965), p. 156.
- 4) Brooks, et al, p. 353. “great literary engineer.”
- 5) 『포우선집』 420~421쪽, “the sentiment of Poesy” 또는 “the Poetic Sentiment.”
- 6) 『포우선집』 420쪽, “the sense of the beautiful of the sublime, and of the mystical.” (이후로는 『포우선집』에서의 내용에는 쪽수만을 표시함.)

교훈적인 시인은 격이 떨어지는 시인으로 생각했다(412쪽). 그는 시를 “아름다움의 율동적 창조”<sup>7)</sup>라고 말하면서, 이런 의미에서 음악은 우리의 영혼이 다다를 수 있는 아마도 “최상의 아름다움의 창조”<sup>8)</sup>에 이르는 걸일 것이라고 포우는 말하고 있다. 워즈워쓰와는 대조적으로 이러한 아름다움을 시에서 이룩한 예를 포우는 키츠 Keats의 예에서 보여 주면서, 키츠는 그의 시에서 한 번도 그의 목표인 아름다움에 이르지 않은 예가 없음을 상기시킨다(439쪽).

포우가 시를 시적 정서에 기초한 아름다움의 율동적 창조이며, 최상의 아름다움을 창조한다는 측면에서 시를 음악과 같은 위치에 놓았다는 관점에서 볼때 그는 시의 유미주의적인 면을 중시한 시인이며 비평가였다. 그러나 그가 시를 “아름다움의 율동적 창조”라고 정의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또한 시의 창작은 그저 자연적인 상상력의 발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는 시의 창작과정과 또한 시가 독자에 미치는 영향에도 관심을 기울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는 “시는 시적인 재능이 아니고 [이러한 시적인 재능을] 다른 사람에게서 유발시키는 <방법>이다”<sup>9)</sup>라고 말함으로써, 시의 장인척(匠人的)인 측면과 또한 이의 효과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는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시는…어떤 사람들에게 있는 시적 정서를 언어로 표현한 실제적인 결과이다. 그리고 어떤 시가 잘 써여졌는지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서 이러한 시적 정서를 유발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다.<sup>10)</sup>

포우는 단편 소설에서나 마찬 가지로 시에서도 단일 효과(single effect)를 중요시 하였으며, 이러한 단일 효과는 시가 주는 효과의 통일성(unity of impression)(454쪽)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겼다. 그는 또한 효과의 통일성과 단일 효과는 읽는 사람이 이러한 효과를 얻게 되는 적절한 시의 질이에도 그 원인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문학 작품이 한번 읽기기에 너무 긴 경우라면, 이러한 단일 효과와 효과의 통일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고 시나 단편소설의 질이는 한 번 앉아서 읽을 수 있는 것보다 더 걸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한다(454쪽). 즉, 시나 단편 소설의 경우에는 “간결은 의도하는 효과의 강도와 정비례해야 한다”<sup>11)</sup>고 말함으로서 농축된 서술을 강조한다.

포우는 시의 주제로서 가장 적합한 것으로 아름다움을 들었다. 아름다움에 대한 관조(觀照)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숭고하며, 또한 가장 순수하다”<sup>12)</sup>고 그는 말한다. 그는 또한 어떤 종류의 아름다움이든지 간에 그것이 최고조의 고양된 형태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감정에 여린 사람을 눈물흘리게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수(melancholy)가 이러한 시적 정취를 불러 일으키는 데 가장 적합한 소재라고 포우는 말한다(456쪽). 그러면 모든 우수 중에서 가장 우수적인 것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은 죽음인데 죽음 중에서도 아름다움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죽음이 가장 우수적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7) 439쪽. “the Rhythmical Creation of Beauty”

8) 439쪽. “the creation of the supernal beauty”

9) 421쪽. “a poem is not the poetic faculty but the means of exciting it in mankind.”

10) 421쪽. “Poetry...is the practical result, expressed in language, of this Poetic Sentiment in certain individuals, the only proper methods [sic] of testing the merits of a poem is by measuring its capabilities of exciting the Poetic Sentiment in others.”

11) 455쪽. “the brevity must be in direct ratio of the intensity of the intended effect.”

12) 456쪽. “the most intense, the most elevating and the most pure”

더므로 아름다운 여인의 죽음은 가장 우수를 차아내는 시의 주제가 되며, 이는 세상에서 가장 시적인 주제라고 포우는 말한다(458쪽).

이처럼 포우는 시적 정서에서 출발하여 어떻게 시가 시적 정서를 다른 이에게 유발하는가에 의하여 잘된 시와 그렇지 못한 시를 구분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의 아름다움의 주제는 우수이며, 아름다운 여인의 죽음이 이러한 우수 중에서 최상에 속하는 것으로 그는 생각했다. 이제 그의 시론에 따라 그의 시 몇 편을 살펴 보기로 하자.

### 포우의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그리움의 시들

포우의 시론과 그의 생애에서 볼 수 있듯이 그의 시의 주종을 이루는 것은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그리움이다. 이러한 시들은 포우가 말하는 우수의 가장 순수한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다. <헬렌에게 To Helen>라는 시는 이런 시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시로 여겨진다. 포우는 어린 시절 리치먼드 Richmond에서 학교를 다닌 적이 있다. 이 때 그의 굽우의 어머니인 제인 스티쓰 스탠어드 부인 Mrs. Jane Stith Stanard을 만난다.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감정이 격하고 신경이 예민했던 포우는 항상 외로움을 느꼈다. 그럴 때면 포우는 스탠어드 부인을 찾아 가서 위안과 가르침을 받곤 했다. 스탠어드 부인은 포우에게는 어머니 이자 연인인 셈이었다. 그러나 스탠어드 부인은 얼마후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포우는 이루 말 할 수 없는 비탄과 우울에 빠졌다. 포우는 그녀의 무덤을 매일 찾아 가서 방황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이 시는 그가 14세때 처음 쓴 것으로서 그후 여러 해 동안의 추고를 거쳐 36세 되던 해인 1845년에 지금 우리가 보는 시로 출판되었다. 이 시는 포우 시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 준다. 헬렌은 이상적인 여인상으로서 아름다움과 고전미를 갖추고 있다. 그녀는 또한 가까이 할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서 단지 그리움으로만 남아 있는 존재이다.

#### 헬렌에게

헬렌이여, 그대 아름다움은 내게는  
흡사 그 옛날 니케아의 듯배 같아라.  
향기로운 바다 위를 조용히  
피곤하고, 지친 나그네를  
고향 바닷가로 실어다 준.

거친 바다를 오래 해매던 나에게  
그대 히아신스 꽃 빛깔의 머리카락, 고전적 얼굴,  
물의 여신(女神) 같은 자태에서 간절히 느끼나니,  
지난 날의 그리스의 영광,  
지난 날의 로마의 장려(壯麗).

보라! 저기 빛나는 창의 벽감(壁龕)에  
그대는 조상(彫像)처럼 서 있으나니  
마노의 등불 손에 든 채!  
아, 거룩한 나라에서 온  
여신 사이키 로다!

TO HELEN  
Helen, thy beauty is to me

Like those Nicéan barks of yóré.  
 That gently, o'er a perfumed sea,  
 The weary, wayworn wanderer bore  
 To his own native shore.  
  
 On desperate seas long wont to roam,  
 Thy hyacinth hair, thy classic face,  
 Thy Naiad airs have brought me home  
 To the glory that was Greece,  
 And the grandeur that was Rome.  
  
 Lo! in yon brilliant window niche  
 How statue-like I see thee stand,  
 The agate lamp within thy hand!  
 Ah, Psyche, from the regions which  
 Are Holy Land!

그러나 <헬렌에게>는 잃어버린 사랑을 주제로 한 포우의 다른 많은 시들과 몇 가지 점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우선 이 시에 나오는 그리스와 로마의 이미저리는 고전적인 뉴앙스를 풍긴다는 측면에서 다른 시에 나오는 많은 이미저리들과 차이를 보여준다. 그리고 헬렌은 “고전적 얼굴”(두째 연 두째줄)을 하고 있다. 로마와 그리스의 고전적인 아름다움은 밝고 선명하며 이지적인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는 데 반하여, 그의 다른 시에 나오는 잃어버린 사랑의 여인들의 이미저리는 어둡고 불분명하며 감성적인 특징이 두드러진다. 더구나 이 시의 마지막 연에 나오는 헬렌의 이미지는 이러한 대조를 더욱 두드러지게 한다. 여기서 헬렌은 “빛나는 창의 벽감에…조상처럼 서”서, 그녀의 손에는 “마노의 등불”을 들고 있다. 이처럼 이 시에 나오는 헬렌의 이미지는 밝고 선명하며 고전적인 이지(理智)가 주조를 이루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에서는 포우의 다른 시에 나타나는 애수(哀愁)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시의 첫 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헬렌의 아름다움은 객관적이고 고전적인 아름다움에 근거한 것이기 보다는 화자(話者)에게 느껴지는 아름다움이다. 화자가 헬렌을 사랑한다는 암시는 이 시의 어느 곳에서도 드러나 있지 않다. 이렇게 볼 때 이 시는 화자의 마음 속에 있는 사랑의 지도를 펼쳐 보인 것뿐이다. 이러한 우리의 추측은 이 시의 중요한 이미저리가 항해의 이미저리라는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여기에 나오는 헬렌은 고전적인 아름다움의 상징인 트로이 Troy의 헬렌이다. 그리고 화자는 “피곤하고 지친 나그네”로서 고향을 찾아 항해하는 율리시스 Ulysses와 자신을 동일시한다. 이 여행자는 사랑을 찾아 가는 나그네라기 보다는 영혼의 구원을 찾아나서는 구도자이다. 이 시의 마지막에서 화자는 헬렌이 비춰주는 등불로 거룩한 나라에서 온 사이키 Psyche를 만나게 된다. 이 사이키는 그가 찾던 이상(理想)이고 마음의 고향이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사이키가 헬렌인지의 여부는 분명치 않다. 아마도 사이키<sup>13)</sup>는 화자 자신의 영혼 깊은 곳을 의미할 수 있다. 또한 사이키는 키츠의 <사이키에 바치는 노래 Ode to Psyche>에 나오는 사이키와 같은 존재일 수도 있다. 희랍신화에 나오는 사이키의 얘기

13) 사이키 Psyche는 희랍말로 다음의 여러가지의 뜻이 있다. ① 영혼, ② 정신, ③ 나비(butterfly).

에서처럼 그렇다면 헬렌이 들고 있는 등불은 채양의 등불인 동시에 또한 사랑의 결합을 가능케하는 등불이기도 하다. (희랍 신화에서는 사이키라는 여자가 밤에만 찾아오는 큐피드——또는 에로스 Eros라고도 불리움——신과 깊은 사랑에 빠진다. 큐피드는 사이키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지 말라고 했으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사이키는 촛불을 켜서 잠든 그를 보게 된다. 촛농이 큐피드의 어깨에 떨어지자 그는 놀라서 깨어나 그의 고향으로 갔다. 이후 여러 가지의 우여곡절 끝에 사이키와 큐피드는 서로 만나 사랑을 이룬다.) 헬렌이 손에 들고 있는 등불은 그러므로 포우의 다른 여러 시에 나오는 이루지 못한 사랑을 상징적으로 예고할 수도 있다. 포우의 이루지 못한 사랑을 노래한 많은 시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지고 사랑받는 <애너벨 리 Annabel Lee>를 보기로 하자.

<애너벨 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 우선 이 시는 그의 또 다른 시인 <울랄룸 Ulalume>과 더불어 포우의 부인인 베지니아의 죽음과 관계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시이다.<sup>14)</sup> 이러한 포우 자신의 자전적 요소는 그가 말하는 아름다운 여인의 죽음이 불러 일으키는 우수에 합당한 주제이다. 또한 이 시에는 고도의 음악성이 드러나 있다. 우선 “애너벨 리”라고 하는 이 시의 제목으로 쓰인 이름에는 콧소리인 /n/이 들어 있어 깊고 장중한 울림을 동반한다. 이것은 이 시 전체를 통하여 자주 쓰이는 /m/과 /ng/음도 같은 효과를 일으킨다. 이런 콧소리들은 신비스럽고 현묘(玄妙)한 느낌을 주는 소리이다. 콧소리들은 이 시의 거의 모든 줄에 나타나는데 특히 이 시의 첫 연에서는 한 줄에도 콧소리가 두 개 이상 쓰이고 있다.

### 애너벨 리

오래고 또 오랜 옛날  
 바닷가 어느 왕국에  
 애너벨 리라는 이름을 가진  
 한 소녀가 살고 있었다.  
 이 소녀가 오직 한결같이 생각한 것은  
 나와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  
 그녀도 어렸고 나도 어렸다,  
 바닷가 이 왕국에서.  
 그러나 우리는 사랑 이상의 사랑으로 사랑했다——  
 나와 나의 애너벨 리는——  
 하늘의 날개 달린 천사들도  
 그녀와 나를 부러워했던 사랑으로.  
 그 때문이었다, 오래 전에  
 바닷가 이 왕국에서  
 밤에 구름으로부터 불어 온 바람이  
 나의 애너벨 리를 싸늘하게 만들었던 것은.  
 그래서 그녀의 자체 높은 친척들이 찾아와서  
 그녀를 내께서 테려 가서는

14) *The Complete Poetry and Selected Criticism of Edgar Allan Poe*, ed., Allen Tate (N.Y.: New Am. Library, 1968), p. 139.

바닷가 이 왕국에 있는  
무덤에 가두어 버렸다.

절반만큼도 행복하지 못한 하늘의 천사들이

그녀와 나를 시기하였다.

그렇다! 그리기에(누구나 다 알고 있듯,

바닷가 이 왕국에서)

구름으로부터 바람이 불어 와

나의 애너벨 리를 싸늘히 죽였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 그것은 훨씬 더 강했다

우리보다 나이 많은 이들의 사랑보다도——

우리보다 아주 지혜로운 많은 이들의 사랑보다도——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도

바다 밑의 악마들도

나의 영혼을 떼어 놓을 수는 없다,

아름다운 애너벨 리의 영혼으로부터.

달빛 밝을 때면 언제나 나의 꿈 속엔

아름다운 애너벨 리의 모습이 나타나고,

별들 떠오를 때면 언제나 나는

애너벨 리의 아름다운 빛나는 눈을 본다.

그리기에 밤이 새도록 나는 누워 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산부 결에,

거기 바닷가 그녀의 무덤에서——

바다 앞 그녀의 묘지에서.

It was many and many a year ago,

In a kingdom by the sea,

That a maiden there lived whom you may know

By the name of Annabel Lee;

And this maiden she lived with no other thought

Than to love and be loved by me.

I was a child and *she* was a child,

In this kingdom by the sea:

But we loved with a love that was more than love——

I and my Annabel Lee;

With a love that the winged seraphs of heaven

Coveted her and me.

And this was the reason that, long ago,

In this kingdom by the sea,

A wind blew out of a cloud, chilling

My beautiful Annabel Lee;

So that her highborn kinsmen came

And bore her away from me,  
To shut her up in a sepulchre  
In this kingdom by the sea.

The angels, not half so happy in heaven,  
Went envying her and me——  
Yes!——that was the reason (as all men know,  
In this kingdom by the sea)  
That the wind came out of the cloud by night,  
Chilling and killing my Annabel Lee.

But our love it was stronger by far than the love  
Of those who were older than we——  
Of many far wiser than we——  
And neither the angels in heaven above,  
Nor the demons down under the sea,  
Can ever dissever my soul from the soul  
Of the beautiful Annabel Lee!

For the moon never beams, without bringing me dreams  
Of the beautiful Annabel Lee;  
And the stars never rise, but I feel the bright eyes  
Of the beautiful Annabel Lee;  
And so, all the night-tide, I lie down by the side  
Of my darling, —my darling, —my life and my bride,  
In her sepulchre there by the sea,  
In her tomb by the side of the sea.

그리고 웃소리보다는 그 빈도수가 많지는 않지만 가볍고 경쾌한 소리인 /l/이 많이 쓰이고 있는 것도 재미있는 현상이다. 이 /l/ 소리는 “애너벨 리”에서 두 번 쓰이고 있다. 셋 째 연에서는 “beautiful Annabel Lee”에서 /l/음이 세번 쓰였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 “My” 가 덧붙여짐으로써 아주 경쾌한 효과를 일으키며 또한 깊은 맛까지를 낸다. 그러나 넷째 연의 마지막 줄에서는 이러한 /l/소리가 주는 경쾌한 소리의 효과를 반전시켜 파열음(破裂音)인 /k/와 결합시킴으로써, 우리를 놀라게 한다. 또한 이 시에서는 포우가 그의 <창작의 원리 The Philosophy of Composition>에서 지적한 반복(refrain 또는 repetition)을 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포우선집』 457쪽). 즉, 이 시의 중간 중간에 나오는 “Annabel Lee”와 “Kingdom by the sea”는 주문(呪文)처럼 우리를 사로 잡는다. 이러한 반복은 특히 첫 줄과 마지막 두 줄에서 효과적으로 쓰여지고 있다. 첫 줄에서는 “many”가 두 번 반복되어, 반복이 주는 원초적인 어감을 준다. 또한 마지막 두 줄에서는 “the sea”를 끝에 반복함으로써 애너벨 리가 바다에 힘몰하는 느낌을 불러 일으킨다.

이러한 소리가 주는 음악성은 개별적인 소리에서뿐만 아니라 이 시 전체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소리의 음조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 시의 전반부에는 대체로 밝고 명랑한 음조

가 드리워져 있으나, 후반부에 가서는 어둡고 무거운 소리가 지배적이 된다. 이러한 예를 첫 연과 마지막 연의 대비에서 보기로 하자. 첫 연의 모음은 대부분 이 /i/나 /e/ 등의 단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마지막 연에는 /u:/나 /i:/ 등의 장모음과 이중 모음으로 이루어져 깊고 무거우며 음울한 분위기를 짙게 풍겨준다. 특히 마지막 줄의 “tomb”은 이러한 음조의 마지막 전반에서 나는 가장 깊고 음울한 소리로 울려 퍼진다. 이러한 현상은 〈울랄룸〉의 여덟번째 연의 끝부분에 나오는 다음 구절과 대비시켜보면 아주 분명히 드러난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귀여운 누이여, 무엇이 적혀 있지,  
명(銘)이 새겨진 이 묘지의 문 위에는?”  
그녀는 말했다—“울랄룸—울랄룸—  
이것은 그대의 죽은 우랄룸의 무덤 !”

And I said—“What is written, sweet sister,  
On the door of this legended tomb?”  
She replied— “Ulalume—Ulalume!—  
'Tis the vault of thy lost Ulalume!”

여기서 서로 운(韻)을 이루는 tomb와 Ulalume은 각 줄을 맷을 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을 막아 미래까지를 차단한다. 이는 곧 모든 희망의 단절을 의미하며 이러한 깊은 고뇌의 소리가 tomb와 Ulalume에서 나오는 깊고 무거운 소리로 울려 퍼지면서 이루지 못한 사랑은 무덤 속으로 합몰한다.

### 포우의 실패한 다른 시들

포우는 많은 시를 쓴 시인은 아니다. 그는 기껏해야 50편 정도의 시를 남겼다. 물론 그는 시를 여러 번 수정했기 때문에 이들까지 치면 그 숫자는 좀 더 늘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편의 숫자를 따진다면 그는 주요 시인은 아니다. 그의 시를 이러한 양적인 측면이 아닌 질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는 성공한 시인이 못 된다. 그러면 그가 시인으로 성공하지 못한 이유와 그의 많은 시가 잘 씌여진 시가 못되는 이유를 살펴보기로 하자.

포우는 그의 작가로서의 출발을 시인으로 시작했다. 그가 『태멸레인과 다른 시편들 Tamarlane and Other Poems』이란 그의 첫 시집을 보스톤에서 익명으로 출판한 것이 1827년이니, 그가 만 16세 되던 해이다. 이처럼 그에게는 시는 젊은 정열의 분출이었다. 따라서 그의 시는 근본적으로 젊은 사람의 시였다. 젊다는 말이 함축하는 의미는 따라서 정열적이라는 말이 갖는 의미와 같이 양면성이 있다. 젊다는 말의 의미는 생기있고 발랄하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반면, 미숙하고 무게가 없다는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포우의 많은 시가 실패한 원인이다. 포우가 시인으로 실패했다는 사실은 영국과 미국의 대부분의 평자와 독자가 동의하고 있는 바이다.<sup>15)</sup> 물론 그의 시가 불란서의 상징주의 시인들에게는 열렬히 받아 들여졌으며, 또한 구라파(특히 불란서)에서는 좋은 평을 받고 있다. 이런 사실에 대하여 어느 평자는 불란서 말로 번역된 그의 시가 영어의 원시보다도 낫기 때문이다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우선 그가 시인으로서 실패한 이유 중 가장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이유를 보기로 하자. 그

15) Mutlu Konuk Blasing, *American Poetry: The Rhetoric of Its Forms* (New Haven: Yale UP, 1987), p. 17.

가 시의 음악성을 중요시 했음은 이미 앞에서 본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의 음악성이 <애너벨 리>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았다. 그러나 시의 음악성은 시의 의미와 자연적으로 결합됨으로써 가능한 것이며, 이 둘 사이에는 인위적인 기교의 흔적이 드러나지 말아야 시의 기교로서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시의 음악성의 이론이 기교와 자연적인 융합을 이루지 못하고 이론적인 측면과 기교만이 전면에 드러날 경우는 시는 축고 기교와 이론만 추악한 물골을 드러내게 된다. 이러한 경우를 <종 Bells>에서 보기로 하자. 이 시에는 음악성과 의미의 조화로운 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성어들은 그저 소리를 모방하기만 하는 기능 이상을 발휘하지 못 한다. 이 시는 좀 긴 시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 여기서는 그러므로 첫 연단을 보기로 하자.

### 종(鐘)

#### I

방울을 단 썰매 소리 들으라——  
은방울 소리를!  
그것들의 선율은 참으로 즐거운 세계를 예고하고 있구나!  
얼음 같은 밤공기 속에서  
방울 소리는 딸랑, 딸랑 울리는구나!  
온통 하늘에 뿌려진 별들은  
수정같이 맑은 기쁨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듯.  
방울, 방울, 방울, 방울,  
방울, 방울, 방울로부터——  
방울의 짤랑짤랑 딸랑딸랑 소리로부터  
미묘하게 솟아나는 딸랑딸랑 소리에  
일종의 고대 북유럽 식의 운(韻)을 달아  
박자·박자·박자를 맞추며.

### THE BELLS

#### I

Hear the sledges with the bells——  
Silver bells!  
What a world of merriment their melody foretells!  
How they tinkle, tinkle, tinkle,  
In the icy air of night!  
While the stars, that oversprinkle  
All the heavens, seem to twinkle  
With a crystalline delight;  
Keeping time, time, time,  
In a sort of Runic rhyme,  
To the tintinabulation that so musically wells  
From the bells, bells, bells, bells,  
Bells, bells, bells——  
From the jingling and the tinkling of the bells.

우리는 여기서 은방울이 내는 여러 가지의 소리와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이 시는 더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지 않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시는 여러 가지의 소리를 써서 하나의 시험을 서도한 시일뿐 그 이상은 아니다.

지금 본 <종>의 예는 아주 분명한 경우이나, <울랄룸>에 우리는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이 시가 훌륭한 시가 못 되는 이유를 보기로 하자. 이 시는 포우가 그의 시의 주제로 쓰기에 아주 적격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 시에서 그는 그의 부인인 베지니아와의 사별 후에 그가 느끼는 슬픔을 노래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울랄룸>과 <애너벨 리>는 아주 좋은 대조를 이룬다. 전자가 실패한 시라면 후자는 성공한 시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 둘의 대조는 우리의 흥미를 끈다. <울랄룸>에서 포우는 그의 커다란 슬픔을 자연 묘사와 분위기의 창조를 통하여 아주 훌륭히 보여준다. 그리고 포우는 여기에다 여러가지의 심오한 전문적인 지식 체계를 덧붙인다. 이런 지식 체계는 이 시를 무겁게 하여 이 시가 자신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것이 바로 이 시의 이해에 혼란을 야기시키는 장애요인이다.

그리면 어째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가? 이는 포우가 시를 보는 태도 자체에 기인한다. 포우는 시를 짧은 정열의 분출로 여겼음은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이다. 이에서 더 나아가, 포우는 느낌의 시를 쓸 때, 그 시에 느낌뿐만 아니라 이러한 느낌에 대한 사색까지를 덧붙였다는 데에 그의 시의 실패의 원인이 있다. 이것이 바로 <울랄룸>에서 포우가 짚은 지식체계를 그의 감정과 같이 섞음으로써 시가 무거워져 더 이상 시 자체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게 되는 요인이 된 셈이다. 그리고 포우는 모든 느낌이나 감정이 시의 제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시의 제재가 되는 감정은 대단히 극소수라는 생각을 가졌다(『포우선집』 xii쪽). 이렇게 되면 그가 가진 감정과 생각 사이에는 괴리가 생기게 되고, 엘리어트 Eliot가 말하는 감수성의 분열 (dissociation of sensibility)이 생기는 셈이다. 이러한 감수성의 분열이 하나의 시 속에 나타나면 시는 통일성을 잃게 마련이며, 이의 대표적인 예가 <울랄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포우는 단 Donne이 했던 것과 같이 “사상을 장미의 향기처럼 즉시 느끼지”<sup>16)</sup> 못 했다고 할 수 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그는 시를 쓰면서도 이것은 좋은 시의 제재가 아닌데 하고 생각하면서 시를 쓴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의 시에는 구체적인 이미지리가 없이 이미지리의 혼란만이 있게 되고, 또한 그의 시는 감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상이 감정을 끌고 가게 된다. 포우는 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그의 시론의 체계를 훌륭히 세웠으나, 이러한 시론은 시론에 머물기만 했을뿐, 그가 시를 쓸 때는 오히려 이것이 방해 요인으로 작용했다. 결국 포우는 시를 시로 쓴 것이 아니라 멋있는 구경거리로 만들려고 했다는 비난을 모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포우선집』 xiv쪽).

16) 엘리어트는 그의 <행이상학파 시인들>이라는 논문에서 단 Donne을 예로 들면서, 그는 “사상을 장미의 향기처럼 즉시” 느끼는 감수성의 분열이 없는 시인으로 여겼다. 감수성의 분열이란 감정과 사상이 융합되지 않고 이 둘이 따로 따로 노는 것을 가리킨다.